

2026  
특강  
독서

2026 특강 국어 독서

1. 개념학습 1-1강 조선 시대 학자들의 허심(虛心)의 독서관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선생님.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나요?

이번 단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출제돼.

1. 제시된 학자들이 독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
2. 허심(虛心)의 의미를 묻는 문제
3. 독서에 관한 이황과 실학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



학자들은 독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요?

일단 주자와 이황부터 간단히 정리해 줄게.

주자: 책을 읽을 때 마음을 비우고 집중하되 자신의 견해를 세워 글을 대해서는 안 된다. 물(物)로서 물(物)을 보듯, 글로서 글을 보는 방법으로 독서를 해야 한다.

이황: 글은 성현의 도를 담은 그릇이므로, 세계의 참모습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는 허심(虛心)의 독서를 해야 한다.



자신의 견해를 세워서는 안 된다고요? 아!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읽으라는 거군요! 저 그런 거 잘 해요.

마음을 비우고 집중하라고 한 거지, 너처럼 멍때리라고 하는 거 아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요?

박지원, 정약용과 같은 실학자들도 허심(虛心)을 중요시했는데, 실학자들의 허심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잘못된 지식을 버림으로써 오히려 공정한 주건을 얻게 되는 일을 의미해. 책 속의 글자를 넘어 세계의 참모습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의미하지.



E사와의 저작권 문제로 지문의 내용은 첨부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원본 교재의 지문을 보고 문제를 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능 연계 교재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기업에서 만든 공교자재입니다. 불편하시다면 E사와 교육부에 민원을 넣으셔서 부당한 운영 정책을 바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p9 지문 문제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주자는 자신만의 견해로 글을 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 ② 이황과 박지원은 독서에 대해 지향하는 바가 동일하였다.
- ③ 이황과 실학자들은 모두 허심(虛心)의 독서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 ④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독서의 선결 조건에 대해 이황과 다른 견해를 보였다.
- ⑤ 이황은 마음을 비워야 하기 위해 하늘의 객관적 이치를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

2. 윗글에 제시된 '허심(虛心)'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서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태도
- ② 성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태도
- ③ 독서를 통해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 명예를 얻으려는 태도
- ④ 글의 내용에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태도
- ⑤ 기존의 지식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태도

3. <보기>의 견해를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독서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글 속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세계의 모습을 성찰하는 과정이다.

- ① 윗글의 주자, 이황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 ② 윗글의 박지원, 정약용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 ③ 윗글의 이황의 입장과 대립되는 측면이 있다.
- ④ 윗글의 박지원의 입장과 대립되는 측면이 있다.
- ⑤ 윗글의 모든 학자의 입장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4.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 ① 주자는 독서를 통해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자 했다.
- ② 이황은 독서를 통해 도덕적 수양을 쌓고자 했다.
- ③ 실학자들은 독서를 통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했다.
- ④ 박지원은 독서를 통해 새로운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고자 했다.
- ⑤ 정약용은 독서를 통해 사회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자 했다.

5. <보기>는 윗글에 제시된 학자들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A)~(C)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학자	지양해야 할 점	독서의 방법
주자	(A)	마음을 비우고 글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
이황	힘씀이 정(精)하지 못한 것	(B)
박지원	(C)	기존의 관념을 타파해야 한다.
정약용	기존의 잘못된 지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자신의 주견을 세워야 한다.

	(A)	(B)	(C)
①	글로서 글을 보는 것	사사로움을 버려야 한다.	왜곡된 세계의 허상에 갇히는 것
②	자신의 견해를 세워 글을 대하는 것	성현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기존의 상식이나 관습을 없애는 것
③	자신의 견해를 세워 글을 대하는 것	허심의 독서를 해야 한다.	왜곡된 세계의 허상에 갇히는 것
④	글로서 글을 보는 것	허심의 독서를 해야 한다.	기존의 상식이나 관습을 없애는 것
⑤	글로서 글을 보는 것	성현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왜곡된 세계의 허상에 갇히는 것

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정약용은 독서할 때 먼저 자신의 주견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② 주자는 독서할 때 자신의 견해를 세우지 않고 글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③ 박지원은 독서를 통해 배움에 진전이 없는 이유를 사사로운 마음 때문이라고 보았다.
- ④ 이황은 성현의 말씀과 자신의 소견이 다를 경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⑤ 이황과 박지원은 독서를 위해 마음을 비우는 '허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그 지향점도 동일하였다.

7. 윗글에 제시된 '허심'과 가장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것은?

- ① "유리잔에 물을 가득 채웠다."
- ② "그의 마음은 순수하고 깨끗했다."
- ③ "텅 빈 방에 햇빛이 가득 들어왔다."
- ④ "그는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웠다."
- ⑤ "그는 모든 것을 잊고 편안한 상태가 되었다."

8. 주자가 중요하게 여긴 독서의 자세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독서를 할 때에는 항상 메모를 해야 한다.
- ② 독서를 하면서 지인들과 토론을 해야 한다.
- ③ 같은 주제를 다룬 여러 책을 동시에 읽어야 한다.
- ④ 반드시 글로서 글을 보는 방법으로 책을 읽어야 한다.
- ⑤ 독서를 할 때에는 자신의 견해를 세워 글을 대해야 한다.

9. 이황이 강조한 독서의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독서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세워야 한다.
- ② 성현의 말씀에 대해 비판적 태도로 책을 읽어야 한다.
- ③ 독서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 ④ 자신의 생각이 성현과 다를 경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 ⑤ 독서를 하며 마음을 비우기 위해 세계의 참모습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10. 박지원이 강조한 독서의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독서 중에는 사사로운 마음을 버려야 한다.
- ② 독서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독서를 할 때에는 항상 독서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 ④ 독서를 할 때에는 가급적 많은 책을 동시에 읽어야 한다.
- 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책을 읽어야 한다.

서술형 문제

16. 이황이 독서를 할 때 사사로움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17. 평생토록 독서를 하여도 배움에 진보가 없는 경우, 문제 상황의 원인을 박지원의 관점에서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18. ‘공정한 주견’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실학자들의 관점에서 쓰시오.

19. 실학자들이 주장한 독서의 선결 조건이 무엇인지 3어절로 쓰시오.

20. 윗글에 나타난 이황과 박지원의 공통적인 주장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O/X 문제

21. 주자는 책을 읽을 때 마음을 비워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 (O / X)

22. 이황은 글이 성현의 도를 담은 그릇이라고 하였다. .... (O / X)

23. 실학자들과 달리 이황은 독서의 선결 조건이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 (O / X)

24. 박지원은 평생토록 독서를 하여도 배움에 진보가 없는 것은 사사로운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 (O / X)

25. 실학자들은 자신의 주견을 버림으로써 공정한 주견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 (O / X)

26. 실학자들은 책 속의 글자를 넘어 세계의 참모습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허심으로 보았다. .... (O / X)

27. 실학자들이 중요시한 허심이란 기존의 상식이나 관습을 없애기 위한 방편에 해당한다. .. (O / X)

28. 이황은 독서를 할 때에는 먼저 자신의 주견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O / X)

29. 주자는 책을 읽을 때 자신의 견해를 세워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 (O / X)

30. 정약용은 독서를 할 때에는 먼저 담박하여 사사로움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 .... (O / X)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③

이황은 “글은 성현의 도를 담는 그릇이므로, 세계의 참모습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는 허심(虛心)의 독서를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였다가 첫 단락에 제시되어 있고, 박지원을 비롯한 실학자들은 기존의 상식이나 관습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허심을 중요시하였다.

① 주자는 자신의 견해를 세워 글을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② 이황과 박지원은 독서를 위해서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강조하였지만, 지향하는 바는 다르다는 내용이 세 번째 단락에 제시되어 있다.

④ 이황은 독서를 통해 하늘의 객관적인 이치를 살피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함을 강조하였고, 조선 후기 실학자들 역시 독서의 선결 조건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⑤ 이황은 하늘의 객관적 이치를 살피기 위해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함을 강조하였다.

### 2. [정답] ⑤

이황은 독서를 할 때 마음을 비우는 태도를 허심(虛心)이라 하였고, 실학자들은 기존의 상식이나 관습을 없애고 열린 마음을 지니는 것이라 하였다.

① 허심(虛心)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므로 독서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성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허심(虛心)의 태도로 볼 수 없다.

③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 명예를 얻으려는 독서 태도는 윗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주자는 글로서 글을 보는 방법으로 독서를 해야 하고, 이황과 박지원은 마음을 비우고 독서를 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태도는 허심(虛心)으로 볼 수 없다.

### 3. [정답] ②

<보기>에서 제시된 견해는 박지원과 정약용을 비롯한 실학자들이 지향하던 ‘책 속의 글자를 넘어 세계의 참모습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과 맥락을 같이 한다.

① 이황은 세계의 참모습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는 허심(虛心)의 독서를 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주자가 독서를 통해 세계의 모습을 성찰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이황이 독서를 통해 세계의 모습을 성찰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보기>의 견해가 이황의 입장과 대립된다고는 볼 수 없다.

④ <보기>의 견해는 박지원을 비롯한 실학자들의 지향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⑤ <보기>의 견해는 실학자들의 입장과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지만, 주자와 이황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 4. [정답] ②

“글은 성현의 도를 담는 그릇”이라는 이황의 말과, “이황은 독서를 통해 하늘의 객관적인 이치를 살피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함을 강조하였다.”에서 이황이 독서를 통해 도덕적 수양을 쌓고자 했다는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① 주자가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자 했다는 내용을 추론할 근거는 윗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③ 실학자들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였다는 내용을 추론할 근거는 윗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④ 박지원이 새로운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고자 했다는 내용은 윗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⑤ 정약용이 사회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자 했다는 내용은 윗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 5. [정답] ③

주자는 자신의 견해를 세워 글을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므로 자신의 견해를 세워 글을 대하는 것은 주자에게 있어 지양해야 할 점에 해당한다. 이황은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허심의 독서를 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허심의 독서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황이 주장한 독서의 방법으로 적절하다. 박지원은 왜곡된 세계의 허상에 갇히지 않기 위해 선입견을 제거하고 열린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왜곡된 세계의 허상에 갇히는 것은 박

지원에게 있어 지양해야 할 점에 해당한다.

- ① 글로서 글을 보는 것은 주자의 독서 방법이므로 지양해야 할 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이황에게 있어 성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독서의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고, 박지원에게 있어 기존의 상식이나 관습을 없애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 아닌 지향해야 할 것에 해당한다.
- ④ 글로서 글을 보는 것은 주자의 독서 방법이므로 지양해야 할 점에 해당하지 않고, 박지원에게 있어 기존의 상식이나 관습을 없애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 아닌 지향해야 할 것에 해당한다.
- ⑤ 글로서 글을 보는 것은 주자의 독서 방법이므로 지양해야 할 점에 해당하지 않고, 이황에게 있어 성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독서의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6. [정답] ⑤

이황과 박지원은 독서를 위해 마음을 비우는 '허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세 번째 단락에서 지향하는 바는 사뭇 다르다고 하였다.

- ① 세 번째 단락에서 정약용은 “독서를 할 때에는 먼저 자신의 주견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주자는 책을 읽을 때 마음을 비우고 집중하되 자신의 견해를 세워 글을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 ③ 박지원은 평생토록 독서를 하여도 배움에 진보가 없는 것은 사사로운 마음이 독서를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 ④ 이황은 “성현의 말씀과 나의 소견이 다르다면 나의 힘쓰미 정(精)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하였다.

7. [정답] ③

허심(虛心)은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아무것도 없는'의 의미를 지닌 '텅 빈'이 적절하다.

- ① 분량이나 수효가 한도에 찼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나쁜 생각이나 마음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안의 것을 치우거나 없앤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단념하고 생각하지 않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8. [정답] ④

주자는 물(物)로서 물(物)을 보듯, 글로서 글을 보는 방법으로 독서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 ① 항상 메모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윗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② 독서 토론과 관련된 내용은 윗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③ 여러 책을 동시에 읽어야 한다는 내용은 윗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 ⑤ 주자는 자신의 견해를 세워 글을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9. [정답] ④

성현의 말씀과 나의 소견이 다르다면 나의 힘쓰미 정(精)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생각이 성현과 다를 경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독서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세워야 한다는 이황의 주장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② 이황은 성현의 말씀과 나의 소견이 다르다면 나의 힘쓰미 정(精)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하였으므로 성현의 말씀에 대해 비판적 태도로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이황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독서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이황은 세계의 참모습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는 허심(虛心)의 독서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10. [정답] ①

독서를 위해서는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강조한 점에서 이황과 박지원은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듯하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② 박지원이 독서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는 내용은 윗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 ③ 독서할 때 항상 독서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내용은 윗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